

연구원 소식·동정

2012년 대한청각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 연제상 수상

- 일 자 : 2012. 5. 20(일)
- 수 상 자 : 김규상 연구위원
- 소 속 : 직업병연구센터
- 논 문 명 : Exacerbation of Noise-Induced Hearing Loss by Co-Exposure to Organic Solvents and Heavy Metals in Korean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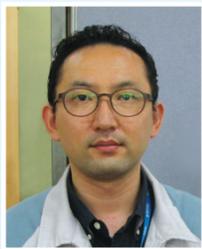
산재예방유공자 수상

- 수 상 자 : 이종한 팀장
- 소 속 : 화학물질정보팀
- 포상훈격 : 고용노동부 장관



5월 CS (Customer Satisfaction) – Star 수상

- 수 상 자 : 박지훈 과장
- 소 속 : 안전인증센터
- 선정사유 : S마크 인증사업장 해피콜 결과 최고의 고객감동 실현



6월 CS (Customer Satisfaction) – Star 수상

- 수 상 자 : 최성용
- 소 속 : 안전인증센터
- 선정사유 : 고객만족을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 및 고객 의문점 해결



국제회의의 참가기

제23차 UN GHS 전문가 분과위원회 회의를 다녀와서

– 화학물질센터 이권섭 연구위원 –

제23차 UN GHS 전문가 분과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4일(화)부터 7월 6일(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정보전달 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한 기술 지침서 개발을 목적으로 36개 정식 회원국, 5개 국제기구 및 13개 비정부기구 전문가 9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식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UN GHS 지침서 제5차 개정판의 출판(2013년 예정)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GHS 이행에 관련된 국제적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제23차 회의에서는 GHS 분류와 관련하여 폭발성물질, 물반응성물질, 고압가스 등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를 위한 실험방법 및 분류기준의 검토와 피부 부식성·자극성 물질의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과 절차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유류산업환경보건협회(IPIECA) 등이 제안한 화학 물질 분류정보의 통일화와 DB화 전략에 따른 국제적 이행 협력방안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GHS 체계로 화학물질 정보관리가 재편되면서 과거 민간 주도형 DB관리 체계에서 국제기구나 개별국가 단위의 통합형 DB관리 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OECD와 미국 등의 선진 외국에서 관심이 많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GHS 분류정보(약 15,000여종)에 대한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류정보에 대한 영문화 제공 시스템의 조기 구축과 선진 외국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DB관리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할 수 있었다.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뉴스레터 | 2012. 08. No. 2 |

OSHRI Newsletter / No.2 August 2012



연구원장 메시지 GO

미국의 건설재해예방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의 건설재해예방 역사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다. 미국에서 건설재해예방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 노동단체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한다. 노동단체에서 연구기금을 만들어 볼 테니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더러 건설재해예방 연구활동을 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NIOSH를 중심으로 추진된 미국에서의 건설재해예방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노동자가 건설재해예방을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

고 참여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노사는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둘째, 건설재해예방은 법 또는 기술 어느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우수사례로부터 배우기, 우리나라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실태 파악하기, 맞춤형 개입연구를 통해 재해예방감소효과 확인하기, 효과가 확인된 연구결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등의 포괄적인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10년이 지난 20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재해예방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지막 시사점은 이 모든 활동이 국립연구기관인 NIOSH가 중심이 되어 연구 프로젝트로서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R2P(research to practice 또는 research to policy) 역할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 내용은 일간지에 게재될 원고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정선

안전보건 단신

「중대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월 2일(월) 코엑스에서 제45회 산업안전보건강조조건을 맞이하여 각 국의 사고조사 시스템과 사고조사 기술에 대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 학계, 유관기관·단체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중대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주요 기반시설의 위험성 통제: 자연재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이란 주제를 시작으로 유지나카(Yuji Naka) 일본 안전학회 회장의 '일본의 사고조사 체계', 스티븐 데브로(Steven C. Devereaux) 미국 안전전문가의 '미국의 사고조사기법의 발전', 코스타스 판텔리데스(Costas C. Pantelides) 영국 임페리얼 대학(Imperial College) 교수의 '모델 기반 안전공학' 주제순으로 발표가 이어졌고 사고조사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가 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 안전보건연구 -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야간노동과 근로자 건강보호」 토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월 4일(수) 코엑스에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의 건강위험과 예방대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야간노동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의 야간노동실태를 소개한 고려대 김대성 교수에 이어, 가톨릭대 장태원 교수가 근로자 건강보호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산업안전보건사업장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및 사업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고, 280여명의 토론회 참가자들은 야간노동과 교대작업의 심각성과 합리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였다.



※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 안전보건연구 -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시상식 개최 및 안전체험관 운영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우수한 성능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생산·유통·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품질대상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 품평회 개최결과 우수제품에 대한 시상식 지난 7월 3일(화)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주)경도상사에서 출품한 보호구(송기마스크)가 대상, (주)타포의 조립식 안전난간대 등 7개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가 각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강조조건 중에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인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안전체험관은 인증제도, 인증대상, 제품시험방법,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및 방호장치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Zone(인증제도 안내), 제품시험 Zone(인증심사, 시험안내), 우수제품 전시 Zone(품질대상 수상제품), 제품시험 Zone(착용, 체험) 등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석면건축물 관리와 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월 3일(화) 코엑스에서 석면 건축물 관리와 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석면해체·제거 작업방법 및 건축물 관리 방법을 알리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공단, 학계 및 석면조사·분석 전문업체 등 각계의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고, 발표 후 각 주제별로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세미나 발표 주제는 '석면관리 정책 방향',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할', '석면 함유 건축물 관리 방안' 등이며,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및 석면해체·제거 사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석면건축물 관리와 감리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에 들어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 안전보건연구 -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안전보건 단신

「한국의 직업병 감시체계」 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그간 운영해 온 직업병감시체계들을 개괄하고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한국의 직업병감시체계'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의 직업병감시체계' 책자에서는 우리나라 직업병감시체계 구축의 역사를 종류별로 둘러보았다. 또한 그간 연구원에서 수행한 석유화학공단이나 구미, 창원, 부산, 인천 등 지역별 직업병감시체계 운영내용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피부질환, 천식 등 전형적인 직업병 종류별 감시체계운영 결과도 수록하였다. 특히 최근 중점을 두고 운영한 직업성암 발생 감시체계에는 중피종암, 폐암, 조혈기계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있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병 감시체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업병 감시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보았다.

※ 세미나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 안전보건연구 -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안전보건 연구동향 및 국제학술지 SH@W 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국내 안전보건 학술활동의 허브(Hub)기관으로서 최신 안전보건 연구동향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연구동향' 2012년 제4호(여름호)와 '국제학술지(SH@W)' 2012년 제2호를 발간했다. 안전보건연구동향은 국내외 연구원들의 안전보건 학술정보, 연구원에서 수행한 최신 연구과제 및 국내외 안전보건 논문 등을 실어 2007년 9월 창간 이래 총 56회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창간한 국제학술지(SH@W)는 국내외 연구원들의 안전보건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여 국내외 안전보건관련 연구기관, 대학, 국제기구 등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국제학술지(SH@W)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SCI급의 전문학술지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안전보건연구동향 및 국제학술지는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와 SH@W홈페이지(www.e-shaw.org)에서 볼 수 있다.



연구원 국제동향

미국 산업안전보건 연구기관 방문 - 재해통계분석팀 김영선 연구위원 -

김영선 연구위원은 미국 안전보건연구기관의 연구성과·체계와 선진 재해통계 산출 기법 공유를 위해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및 BLS(미국노동통계국)등을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을 통하여 미국 주요 산업안전보건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연구수행체계, 미국 재해통계 산출을 위한 Data 수집 체계 및 서비스업 분야의 산재취약 계층 연구방법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WHO 협력사업 산업보건전문가 초청연수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6월 18일(목)부터 6월 22일(금)까지 5일간 아시아 개발도상국 산업보건관계자 6명을 초청하여 석면의 측정·분석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단의 세계보건기구(WHO) 산업보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에는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기관에서 선발된 6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분석법과 건축자재 등 고형시료 중의 석면 분석법에 대해 실무위주로 연수를 받았다. 또한 연구원은 이번 연수와 더불어 석면의 측정·분석에 대한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면 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WHO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사업 연구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7월 10일(화)부터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국내의 우수한 고용노동분야 발전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2012년 필리핀 산업안전보건분야 정책자문사업' 연구에 참여한다. 공단은 지난 2010년 8월 공단-필리핀 노동고용부간 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협력기반 마련을 하고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제도 구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실무회의, 세미나 개최, 전문가 파견 및 필리핀 정책실무자 초청연수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